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박치경



김형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9일 시작돼 30일까지 이어진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 슬로건으로 '공정사회(公正社會)'를 내건 직후 첫 고위직 인선이지만, 몇몇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의 화두가 촉발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역설한 후 기대했던 듯 터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사건이었다.

장관의 딸, 마오쩌둥의 아들

이후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공정 문제의 큰 틀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지역간의 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 전 장관 딸 특채와 비교되는 케이스

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1922~1950) 이야기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주석에 오른 마오쩌둥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형제국가'인 북한

공정(公正)과 공허(空虛)사이...

이 연합군에 밀려다 대규모 병력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아버지로서 범상치 않은 결정을 한다. 마오는 두 번째 큰 아들 양카이훤(楊開憲) 사이에서 태어난 큰 아들 마오안잉의 참전을 허락했다.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던 마오안잉은 중국인민지원군에 합류해 사령관 쑹더화이(彭德懷)의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나 마오안잉은 참전한 지 한 달 만인 1950년 11월 25일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에서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전사하고

만다. 정전 후 마오쩌둥은 베이징으로 돌아온 쑹더화이에게 "왜 내 아들은 데려오지 않았는가?"라며 서운해 했다고 전해진다. 혁명가인 마오쩌둥도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는 부정(父情)에 남몰래 눈물을 삼켰을 것이다.

중국 최고 권력자로서 전장에 나서려는 아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던 마오쩌둥과, 딸 특채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유 전 장관. 마오쩌둥은 아들을 잃었지만 민중의 외경심을 얻었고, 유 전 장관은 딸에게 '고마운 아빠'였지만 여분의 질타에

쓸쓸하게 공직을 마감해야 했다. 공정사회가 강조되면서 가장 따가운 눈길을 받는 또 한 곳은 업체다. 한국경제의 어두운 단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甲乙)관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상생(相生)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상생을 내세우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미덥지는 않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기업논리에서 대기업들이 과연 진정성을 발휘할 것이냐는 의문 때문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부터 진정성을 갖고 일사적인 행동이 아닌 지속적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상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진정성과 지속성이 관건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역 불균형은 대표적인 불공정 현상이다. 현대 국가에서 권력은 사람의 힘과 재화로 총칭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한 쪽에 쏠려있다면 불공정 사회라고 단언할 수 있다.

민중당 이용섭 의원은 최근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1~3급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를 분석해 보았더니 65%가 서울과 영남지역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분포와 개인 능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고위직 인사에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연구주의가 이 같은 편중현상을 불러와 불공정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듯 개인의 도덕 불감증과 대기업의 일과성 제스처, 지역 불균형이 온존한다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본들 되레 공허할 뿐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시설

가파르게 감소하는 전남 인구 대책 없는가

전남도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 둔화추세를 보였던 인구 감소폭이 올해 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줄어 지역사회의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남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90만6959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045명이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전년 고교를 분석해 보았더니 65%가 서울과 영남지역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분포와 개인 능력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고위직 인사에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연구주의가 이 같은 편중현상을 불러와 불공정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듯 개인의 도덕 불감증과 대기업의 일과성 제스처, 지역 불균형이 온존한다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본들 되레 공허할 뿐이다.

때문이다. 또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지역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이 줄어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줄어 지역사회의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남인구 문제는 전남도 등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지방 공동화를 부추기는 수도권 중심정책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전남도 역시 기업유치를 통해 노동시장과 안정된 일터를 확대해야 한다. 전남지역만의 특화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수도권 중심정책도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와 유출을 막을 실질적인 중·장기 경제격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때문이다. 또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지역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이 줄어들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줄어 지역사회의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도를 넘어선 국립대 교수들의 도덕불감증

최고의 지성인 집단으로 일컫는 대학 교수사회가 집단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순천대 교수 2명은 지난 6월말 기자재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4억원에 이르는 연 구비를 횡령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남대와 순천대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인건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파면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목포대 임도 전 총장과 이모 교수 등 3명은 약학대 유치를 명목으로 불법 비자금 3500만원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술값과 경조사비 등에 쓰고 일부는 횡령까지 했다고 한다. 총장까지 책임있는 사람이 이 정도이니 함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 대학 김도 교수는 국책사업 연구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부풀려 1억 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이모, 한모 교수 역시 연구 용역비 및 인건비를 과다

하게 부풀리고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원을 편취해 해경에 적발됐다. 대학 내에서 연구 용역비는 '눈 먼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대학사회의 비리 만연은 무엇보다도 도덕 불감증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조차 터부시되는 이런 치졸한 사건이 대학에서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사건이 극히 일부 이긴 하나 높은 도덕성과 실천을 요구하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련의 비리는 무엇보다 대학 측에 책임이 크다. 연구과제에 대한 검수 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연구비 횡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만큼 투명성 집행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믿을 곳은 없다.

은핀칼럼

류동훈



필자는 광주 광산구 첨단 호반APT에 살고 있고, 처가는 가까운 첨단 대우APT에 있다. 옛날에는 처가와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좋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처가와 화장실은 가까이 있어야 살기가 좋다는 말로 바뀌었다고 한다.

6년전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필자는 장인 장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쓰레기 봉지·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과 설거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장인 장모께서는 필자의 말을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허락받아 광산구 첨단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결

식물 쓰레기를 치울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 물론 필자도 관급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적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귀찮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런데 광산구의 '쓰레기 수거현장 참여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쓰레기 봉지를 치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체험함으로써 쓰레기 분리 수거의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함께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관급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

기고

김용하



얼마 전에 법원의 판결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명문사학대학교에서 특목고 학생을 입시전형에서 우대할 정황이 나타나 그 잘못이 알려지게 되었다. 아직도 그 대학은 대학의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하여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혹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심증은 충분히 가진 대학이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보고사과지·기어 입학제금지·고교 등급제 금지 등 소위 '3불 제도'를 급속도로 추진해 왔다.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이 시책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대학 진학실적에 따라 전국 고등학교가 1등부터 꼴등까지의 순위가 매겨진다는 말이며 곧 편중화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려할 것이고, 초등학교부터의 입시 열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집의 자식보다 앞서려면 추가적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교육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요사이 대학입학의 화두는 당연히 입학 사정관 제도이다. 그런데 입학사정

교육정책 신뢰회복과 변화 수용 시급

부 대학에서 대학입시의 자율화 등을 주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입시에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일선 대다수 학교의 상위 등급 내신자가 특목고 등 특정한 학교의 하위등급에 밀려서 불합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공정한 입학사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원서를 접수한 순진(?)한 대부분의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법원에서는 벌금을 소송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지만, 정부시책을 어긴 것에 대한 사전 행정조치나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책집행의 의지와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자체의 교육과정보다도 대학입학제도에 따라 좌우되는 파행적인 측면이 강하다. 고교 등급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대학교에 따라 입학성적이 대학의 임의적 잣대에 의해 추가 또는 감점이 되어 당락이 뒤

관제도는 획일적인 성적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창의성, 발전가능성,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이다. 우리 광주도 근래에 학생의 육육과 행복감을 증대하는 혁신학교같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시책을 탐구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한, 광주고를 비롯한 몇 개의 고교가 자사고와 자율고, 특성화고 등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생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자율화하여, 특색있게 운영하고, 학력과 인성의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암암리에 그 학교의 과거 성적을 보고, 후배들의 입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처사로 불신을 심하게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탈을 방지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수요자들은 다양화되고 특성화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시인·광주고등학교 교장〉

맞춤법 틀린 노래방 가사 시정 했으면

지난번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래방에 갔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가사의 맞춤법이 완전히 엉망이었다.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찾아낸 틀린 맞춤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가, 엉뚱하게도 틀린 맞춤법 비난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노래방 기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노래 가사 자체가 그 의미전달을 위해 반드시 맞춤법에 맞추지 않은 것도 개중

에 있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노래방 대부분의 가사는 그런 불가피함과는 별개로 전부 다 맞춤법에 대한 기본이 안된 것 투성이였다.

요즘 노래방은 성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학생, 청소년들도 가족과 함께 자주 찾는 공간소가 됐다. 당국은 기계설치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노래 가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맞춤법 표기도 허가규정으로 뒤서 한글이 파괴되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문서희·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Advertisement for K21 aircraft, featuring the text '無等鼓' and 'K21 장갑차'. It describes the aircraft's performance and features, including its use in military operations and its advanced technology.

Advertisement for '은핀칼럼' (Eunpin Column) by Ryu Dong-hoon. It discusses social issues and public opinion,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fairness and social justice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dvertisement fo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submissions). It encourages readers to share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through the newspaper's columns,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ubmissions.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Gwangju Ilbo). I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 and details about its subscription services.